

# 가. 단군 팔아넘기고 충남 제 1 의 재벌이 된 사람

## 1)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갑순

- 민족·국제
  - 김종성 (jkn1002000)
- 22.06.27 15:28 | 최종 업데이트 22.06.27 15:28

- 글씨 크게보기
- 인쇄
- 본문듣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 62
- 10
- 18

▲ 1962 년 10 월 15 일 자 <경향신문> 기사 '황무지의 수확, 유산 4 억 원' © 경향신문

충남 공주에 김갑순(1872~1960)이라는 갑부가 있었다. 어느 정도 갑부였는지는, 죽은 뒤에 상속세가 납부되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사망 2 년 뒤에 발행된 1962 년 10 월 15 일자 <경향신문> 기사 '황무지의 수확, 유산 4 억 원'에 따르면, 사망 당시 자손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2400 만 원이었다. 상속인들은 이만한 돈을 만들 길이 없어 현물 납부를 선택했다. 이때 상속인들이 납부하게 된 현물 내역을 살펴보면, 1960 년 당시의 2400 만 원이 어느 정도 거액이었는지를 추산할 수 있다. 위 기사는 이렇게 보도했다.

"상속세로서 현금 대신 제공할 현물만도 대지 7 천 평, 밭 2 천 7 백 평, 논 1 천 3 백 평, 임야 1 백 82 만 6 천 평과, 서울·대전 지방에 있는 주택 7 백 21 동이라고 한다."

### 김갑순의 변신

김갑순은 청년 시절만 해도 형편이 어려웠다. 위 기사는 "어렸을 때 가세가 곤란하여 그의 모친은 공주장터에서 해장국 장사를 했었다 한다"고 전한다. 돈이 없어 나이 20 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으며, 큰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노름판에도 기웃거렸다고 한다. 그랬던 사람이 대전과 서울 등지에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부로 변신했던 것이다.

○大田 지대의 재산은 남가도 세삼을매단 송남의 자부도 송남  
 淳忠의 재산은 송남의 자그마치 5천4백만원의 재산상속세를 납  
 부한것이지 한갓 몇가지 재산이 있다고있다. 이는 상속자가 현금납세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현물(不動産) 재물을 사세당국에 요청하  
 고있는데 재정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실현되는데 상속세로서  
 현금납세 제정된 원안대로 ○대지 17천평 ○밭 17천평  
 ○논 11천3백평 ○임야 11천82만6천평과 ○지출 大田지방에  
 있는주대 17천21방이라고한다. 이지방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모  
 기드문 저의의 상속재부파로 세인의이목을 끌게한 거부金銀淳忠  
 이 二갑은 갑부가된 통기는 무뎠이었는가?

忠南甲富 故金甲淳翁

충남의 金甲源氏를 4 역원의 재산평가를 받고있는 대부 30인 데 87세를 일기로 60년 6월경 사망했다. 그의 자는 5남 4녀 (현재 3남 4녀)가 있고 그의 명의의 손자가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가옥만도 수십채로 大田 "을 비롯하여 大田 公州장미에서 德昌公州장미를 했었다 한다. 金甲源氏의 모친은 노히하여 8명의 자식을 하였었다. 모친의 자식들 2명은 모친의 산소나마 좋은 곳에 모시고 있다. 자아꽃의꽃에 할아버지 公州지음은 장미 屬屬산소가 좋다

母親은 海康國장사

郡守로있으면서 地勢를調査 開墾에着手  
全忠淸南道 절반을차지

## 富藏의 법

金甲淳의가 이러한  
부호가 된 것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다。  
그가 더웠을 때 가세가

[illegible]

로 변해 버렸다. 그것이  
현제 大田市 大興洞과  
經谷洞, 宣化洞. 그의  
계곡에서 상류에서  
더더욱은 변해 갔다. 이  
것이 고령의 고령의 고령  
정기 두마, 충정, 그  
의 고령정도를 통하여  
국내 최초의 고령정수  
사업을 시작했다. 또  
한양산, '모래'를 비롯  
수하에 한양정수사업  
이후에, 그의 고령정  
사업은 물론, 제 1  
의 고령정수사업. 이  
사업은, 그의 고령정  
사업이다. 마천령(전진)의  
이 고령정수사업은  
의 고령정수사업이다.

金甲淳은 金甲淳의 고령정  
수사업이다. ◇충정  
김갑순 金甲淳의 고령정  
사업은 金甲淳의 고령정



